

## 애민의 민족애\*

— 이광수의 초기 문장을 중심으로 (1908~1919)

박 성 태\*\*

### 요약

민족애는 영속적이고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언어적 힘의 개입 속에서 형성되고 변이되는 역사적 감정이다. 경술국치 전후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한 공감을 통해 민족애를 촉발시키는 일반적인 논법과 달리 이광수는 동정의 함양을 통해 민족애를 형성하고자 했다. 선각자적 세대의식을 지녔던 그의 민족애는 당대적 맥락에서 봤을 때 '애국'보다는 '애민'에 가까웠다. 그는 자공보다는 동정으로, 애국보다는 애민으로 민족애를 형성했는데 이는 일제에 위협적이지 않다는 한계를 띠고 있었다. 그는 동정의 해방적 가능성을 인지했지만 동시에 그것을 무한정 확장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도 간과하지 않았다. 일제에 대한 적개심을 지녔음에도 매체의 한계를 의식한 그는 적개심이 소거된 민족애를 구성했다. 또한 사랑과 민족애의 반목을 인지한 그는 사랑의 감정을 유사가족애로 전환시켜 민족애의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동정의 함양, 적개심의 소거, 그리고 사랑의 관리를 통해 1910년대 이광수는 애민의 민족애를 형성했다. 1919년 1차 세계대전 이후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로 독립의 희망을 얻은 그는 「2.8독립선언문」에서 일본에 대하여 영원의 혈전을 선언한다고 쓴 다음 상해로 탈출한다. 하지만 그가 형성한 애민의 민족애를 떠올려 볼 때 그에게 조선인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한반도로 돌아오는 일은 필연적이었다.

주제어: 이광수, 동정, 애민, 민족애, 「윤광호」, 「어린 벗에게」, 『무정』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A8077389)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연구원

목차

1. 민족애의 역사화
2. 애국보다는 애민, 자긍보다는 동정
3. 매체의 한계와 소거된 적개심
4. 민족애를 위협하는 사랑
5. 결론

## 1. 민족애의 역사화

일반적으로 민족애는 우리민족을 아끼고 위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정의된다. 맹목적 민족애나 편협한 애국심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비판들의 목적은 대체로 과잉을 경계하는 데 있다. 민족애는 흔히 영속적이고 불변하는 이상적인 감정으로 여겨지기에 그 자체는 쉽사리 의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민족애를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서 일련의 논쟁적 과정을 거쳐 구성되고 변화하는 유동적 감정으로 보고 그 형성 과정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는 모습은 찾기 어렵다는 말이다. 민족애를 함양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할지언정 정작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감정으로서의 민족애에 대해 고찰하는 작업은 생소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민족애는 시대적 상황과 무관할 수 없다. 당대의 구조적 조건으로부터 파생되는 구속력과 그에 대한 주체의 수동적 반응 및 능동적 참여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민족애는 형성되고 변이된다. 가령 일제치하에서 수탈을 당하던 식민지시기 조선인들의 민족애는 민중들의 계급적 분노와 결부되지만, 사회주의자와 대립하는 민족주의자들의 논리 속에서 민족애는 계급의식을 초월하는 감정으로 해석된다. 분단 이후 칠십 년간 정치, 경제적 체재경쟁의 시대를 경유한 오늘날 남북한의 사람들이 각각

느끼는 민족애는 이질적인 감정일 공산이 크다. 이처럼 역사적 상황과 주체의 입장에 따라 민족애는 적대와 연민을 오가며 그 성질을 달리 한다.

민족애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당대의 이데올로기로 인해 그 의미가 변화한다는 점에서 정서(emotion)적이지만, 개인적 감정을 넘어 외부로 드러나고 여러 신체들에 강렬하게 전이되어 집단화된다는 점에서 정동(affect)<sup>1)</sup>적이기도 하다.<sup>2)</sup> 민족적 동질감을 느끼는 대상들이 상호 조우하면서 발생하는 집단적 에너지는 기존의 배타적이고 식민화된 제도를 전복하고 일상화된 혐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지만, 타민족

1) 정동(affect)은 의식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외부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몸을 지닌 주체에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신체적이며, 자아와 타자의 관계 안에서 발생, 전이된다는 점에서 유동적이고 집단적인 감정 혹은 힘이라 정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동(affect)은 “나는 항상 정서(emotion)는 정동과 이데올로기의 절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로렌스 그로스버그(그레고리 J. 시그워스, 멜리사 그레그와의 인터뷰), 『정동의 미래: 현실태 속의 잠재태 되찾아 오기』,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옮김, 『정동 이론』, 갈무리, 2015, 495-496면.)다는 로렌스 그로스버그(Lawrence Grossberg)의 말에서 드러나듯 의미화 과정을 거쳐서 고정된 것으로서의 정서(emotion)와 변별된다. “정동은 그동안 너무 자주 정서(emotion)와 동의어로 아무렇게나 사용”(브라이언 마수미, 조성훈 옮김, 『가상계: 운동, 정동, 감각의 아쌍블라주』, 갈무리, 2011, 53-54면.)되어 왔다고 지적한 브라이언 마수미(Brian Massumi)는 정서가 “경험의 질을 사회언어학적으로 고정하는 것”이기에 “틀에 박힌 것”이고 “의미론적이며 기호학적으로 형성된 진행과정 속으로, 내러티브화할 수 있는 작용-반작용의 회로 속으로, 기능과 의미 속으로 강렬함이 삽입되는 합의된 지점”이라고 비판함으로써 정서가 아닌 정동의 가치를 부각시키고자 했다.

2) 무의식적이고 신체적인 ‘정동(affect)’과 의미화되고 사회화된 ‘정서(emotion)’를 구분하는 맥락에서 논자에 따라 이모션(emotion)을 ‘정서’가 아니라 ‘감정’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가령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다. ‘김민수, 오경환, 「감정과 정동 사이 — 감정의 역사화를 위한 방법론적 시론」, 『역사와 경계』 111, 부산경남사학회, 2019, 1-28면.’, ‘소영현, 「감정연구의 도전 — 흐르는 성찰성과 은폐된 미래」, 『한국근대문학연구』 34, 한국근대문학회, 2016, 381-410면.’, ‘이명호, 「문화연구의 감정론적 전환을 위하여: 느낌의 구조와 정동경계론 검토」, 『비평과 이론』 제20권 1호, 한국비평이론학회, 2015, 113-139면.’) 반대로 로렌스 그로스버그의 인터뷰 『정동의 미래: 현실태 속의 잠재태 되찾아 오기』가 수록되어 국내에 출간된 번역서 『정동 이론』과, 브라이언 마수미의 책을 조성훈이 번역한 『가상계: 운동, 정동, 감각의 아쌍블라주』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이모션(emotion)을 ‘정서’로 번역한다. 본고에서는 ‘정동’과 ‘정서’를 택했는데, 이는 ‘감정’을 보다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함으로써 논의상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이다.

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자원으로 오용될 수도 있다. 이렇듯 복합적 특성을 지닌 것이 민족애라면 마땅히 그것의 함양을 권장하기 이전에 먼저 민족애의 형성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족애에 대한 고고학적 성찰은 민족애의 상대화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 민족애의 특성과 그 시대적 가치에 대한 숙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민족애의 역사화를 시도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 대상이 바로 이광수와 그의 문학이다. 생애 전반에 걸쳐 민족주의자로서의 자의식을 일관되게 견지했던 이광수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국 근대사에서 민족의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다룬 인물로 손꼽힌다. 게다가 이광수는 조선인, 특히 조선청년들의 감정 스승을 자임했다. 우선 그는 지덕체가 아닌 지정의를 강조하고 정육(情育)론을 주장했다. 「금일 아한 청년과 정육」(1910)에서 그는 인간이 “실로 정적 동물”<sup>3)</sup>이기에 단지 지혜를 함양하는 것만으로는 올바른 일을 행할 수 없으니 “정육을 기면(其勉)하라”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감정을 문학의 본질로 보는 근대적 문학론을 제시했다. 「문학의 가치」(1910)를 통해 문학을 “정의 분자를 포함한 문장”<sup>4)</sup>이라 정의했으며, 「문학이란 하오」(1916)에서도 “문학은 정의 만족을 목적 삼는다”<sup>5)</sup>고 설명했다. 그는 문학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재현하며 형성하고 교육하고자 했다.

이광수 문학과 감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제출된 눈에 띄는 성과로는 『센티멘탈 이광수: 감성과 이데올로기』가 있다. “근대 한국사회의 문화동역학을 감성구조의 형성 및 변이를 통해 분석”<sup>6)</sup>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3) 이광수, 「금일 아한청년과 정육」, 최주한, 하타나 세츠코, 『이광수 초기 문장집』 I, 소나무, 2015, 61면. 원문은 『대한홍학보』 10, 1910.2. 앞으로 최주한과 하타나 세츠코가 엮은 『이광수 초기 문장집』 I, II권에 수록된 이광수의 글들을 인용할 때는 편의상 각주에 『초기 문장집』으로 표기하고 권수와 면수만 기재하겠다.

4) 이광수, 「문학의 가치」, 『초기 문장집』 I, 89면. 원문은 『대한홍학보』 11, 1910.3.

5) 이광수, 「문학이란 하오」, 『초기 문장집』 II, 109면. 원문은 『매일신보』, 1916.11.10-23.

6) 박현호 편저, 『센티멘탈 이광수: 감성과 이데올로기』, 소명출판, 2013, 8면.

여러 논자들이 협력하여 완성한 이 연구서는 “근대 한국인들의 사고관습과 행위패턴에 영향을 끼쳐온 문화적 구성물들, 예컨대 ‘진보(주의)’, ‘낭만(주의)’, ‘사회주의’, ‘기독교’ 등에” 대해 논구했다. 이를 통해 생산된 인식, 즉, 근대를 관통하며 파생된 문화적 구성물들이 이념과 규범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것과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통해 산출된 부산물이라는 인식의 유효성은 지금도 여전하다.

이광수 문학에서 감정의 문제를 다룬 연구들은 대체로 그가 정육론을 주장했던 1910년대 초기 문학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sup>7)</sup> 동정의 함양을 통해 조선청년을 민족주의자로 육성하려 했던 이광수의 의도를 감안할 때 감정에 대한 논의가 그의 초기 문학에 집중되는 현상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광수 초기 문학에서의 감정의 문제에 주목하는 논의들에서 중

7) 김경미, 「1910년대 이광수 단편소설의 ‘정’의 양가성 연구」, 『어문학』 89, 한국어문학회, 2005, 233-257면; 김행숙, 「이광수의 감정론」, 『상허학보』 33, 상허학회, 2011, 69-99면; 김현주, 「문학·예술교육과 ‘동정(同情) — 이광수의 『무정』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12, 상허학회, 2004, 69-99면; 배개화, 「이광수 초기 글쓰기에 나타난 ‘감정’의 의미」, 『어문학』 95, 한국어문학회, 2007, 349-376면; 신수정, 「감정교육과 근대남성의 탄생」, 『여성문학연구』 15, 한국여성문학학회, 2006, 229-260면; 윤영실, 「노예와 정(情) — 이광수의 『김동의 설움』 번역과 인종/식민주의적 감성론 너머」, 『사이』 33,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2, 185-225면; 이만영, 「특집: 센터멘탈 이데올로기; “이광수”라는 과제: 근대적 읽기 관습의 창출과 계도적 미학의 길-이광수의 문학론과 『무정』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5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3, 139-167면; 이수형, 「1910년대 이광수 문학과 감정의 현상학」, 『상허학보』 36, 상허학회, 2012, 183-217면; 이수형, 「이광수 문학에 나타난 감정과 마음의 관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4,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 317-335면; 이원동, 「『무정』의 감정 체계와 순애라는 질문」, 『우리말글』 85, 우리말글학회, 2020, 219-247면; 최다정, 「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건전함/불량함의 감성구조: 『윤광호』(1918)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46, 이화어문학회, 2018, 131-153면; 최주한, 「제국의 근대와 식민지, 그리고 이광수—제2차 유학시절 이광수의 사상적 궤적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6권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421-446면; 최창근, 「일제강점기 동정 담론의 변천과 함의: 이광수와 김동인을 중심으로」, 『감성연구』 17,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8, 43-66면; 박성태, 「조선청년의 ‘동정(同情)’ 함양을 위하여, 혹은 공감에서 연민으로 미끄러지는 ‘동정’—1910년대 이광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78,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23, 83-114면.

심에 놓인 키워드들은 대체로 ‘정’, ‘동정’, ‘개인’ 등이었으며 ‘민족애’는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못했다. 나라 잃은 시기에 이광수가 구상한 민족애는 식민지적 상황에서 형성된 감정이라는 특수성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광수가 1919년 1월 「조선청년독립단선언서」를 기초하고 2월에 상해로 탈출함으로써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하기 전까지 작성한 글들에 나타나는 민족애의 형성과 변이의 양상에 주목함으로써 이광수 문학의 본질을 재론하고, 나아가 민족애를 역사적 감정으로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2. 애국보다는 애민, 자긍보다는 동정

분단 이후 통일된 민족국가 건설에 실패한 한반도에서 ‘민족’과 ‘국가’는 동의어가 아니며 일제치하의 조선인민들에게도 ‘민족’은 ‘국가’가 아니었지만,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하기 이전까지는 ‘민족’과 ‘국가’가 유사한 의미를 지닐 수 있었다.<sup>8)</sup> 경술국치 이전의 이광수는 ‘국가’와 ‘민족’을 아울러 사용하는 데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다. 1908년 5월 『태극학보』 21호에 게재된 「국문과 한문의 과도시대」에서 그는 “우리 성조(聖祖)가<sup>9)</sup> 개척한 “아세아 동반도의 낙원”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족의 의무”라고 한 다음 “국문을 유지발달함도 역시 국민의 의무”라고 썼다. 따라

8) 물론 당대에 ‘민족’과 ‘국민’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인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08년 7월 30일자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논설문 「민족과 국민의 구별」을 보면 논자는 ‘민족’과 ‘국민’을 구별하면서, ‘민족’의 조건이 동일한 “혈통”, 거주지, “역사”, “종교”, “언어”인 반면, ‘국민’의 조건은 이것들 외에 “정신”, “이해(利害)”,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 정체성 부여 작업을 통해 인민들을 국민으로서 주체화하려 했던 논자의 의도와는 별개로, 사람들이 ‘민족’과 ‘국민’을 “혼칭(混稱)한다”는 불만의 표현에서도 당시에 두 단어가 유사하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9) 이광수, 「국문과 한문의 과도시대」, 『초기 문장집』 I, 23면. 원문은 『태극학보』 21, 1908.5.

서 망국 이전에 글쓰기를 시작한 이광수의 민족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국심에 대한 당대의 논의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한매일신보』나 『황성신문』과 같은 근대 신문들은 경술국치 이전까지 애국심, 즉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기 위한 글들을 꾸준히 지면에 실었다. “이 몸이 국민되야. 국민의무 왜 모르리 부탕도화(赴湯蹈火) 할지라도, 애국심을 잃지 마소 아마도, 독립기초, 애국이자(愛國二字).”<sup>10)</sup> 이것은 1908년 12월 1일 『대한매일신보』 사조(詞藻)란에 실린 시조 「애국심」인데 여기서 애국심은 국민의 의무이자 독립의 기초이며, 온갖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고수해야 할 감정으로 거론된다.<sup>11)</sup> 언론은 국권피탈의 와중에 인민들의 신체에서 촉발되어 전이되는 정동을 독립을 위한 정서로 이념화하여 그들을 국민으로 주체화하고자 했다. 대한제국의 외교, 행정, 인사권이 박탈되고 군대마저 해산되는 지경이었으니 조선인민의 애국심은 독립을 위해 가용될 수 있는 유일한 정서적 자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언론은 인민들을 상찬하거나 혹은 질책함으로써 애국심을 고취시키려 했다. 가령 국채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대한매일신보』에서는 “부인애국”, “김씨애국”과 같은 제목의 기사들을 다수 게재했다. 「김씨애국」을 보면 “의주 상인 김원근 씨가 애국적 사상으로 국채보상에 대하여 일백 원을 본사에 기송하”<sup>12)</sup>였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참가자들의 이름과 금액을 밝혀주고 경우에 따라 시연도 덧붙여줌으로서 애국행위에 대한

10) 「애국심」, 『대한매일신보(국한문)』, 1908.12.1. 본 논문에서 인용문은 가독성을 고려해 한글 맞춤법에 맞춰 원문을 수정하여 작성하였으나, 원문의 분위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표현들은 그대로 두었다.

11) 애국심과 유사한 단어로는 ‘애국성(愛國誠)’이 있었다. 1910년 4월 17일자 『대한매일신보』에는 영은생(瀛隱生)의 시조 「애국성」을 볼 수 있다. “태극기 휘날리며, 전진하는 청년들이. 가는 길 험타말고, 일심으로 나아가쇼. 총검도, 막지못할 것은, 애국혈성.”(「애국성」, 『대한매일신보』, 1910.4.17.) ‘애국성’이 ‘애국심’에 비해 약간 실천적인 어감을 가지기는 하지만 두 단어의 의미에 특별한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2) 「김씨애국」, 『대한매일신보(국한문)』, 1907.5.2.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본문이 구성되었다. 이와 반대로 1906년 7월 26일자 『만세보』에 실린 논설 「애국심」은 인민들을 비판한 경우이다. 국가의 현실이 이토록 위급한데 국가를 위해 “모유(謀猷)를 발하”<sup>13)</sup>고 “우수(憂愁)를 기(起)하”며, “심지(心志)를 분(奮)하는 자”가 없으니, “아한 인민(我韓人民) 같이 애국심이” 없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논자는 인민들을 몰아세웠다.

논자들은 식민화의 원인을 애국심이 부족한 인민들의 냉담함에서 찾기도 했다. 1905년 10월 18일자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애국성질」을 보면, “세계열강”<sup>14)</sup>은 “전국민인이 애국하는 성질이” 있어 국사와 국권을 자신의 일과 권리로 알고 국치와 국영(國榮)을 자신의 수치와 영광으로 여겨 조국을 강하고 부유하게 만들고자 하는데, 이에 반해 “대한인민은” “국가사상이 심히 냉담”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인민이 “애국하는 성질이 무(無)하면 곧 인민이” 없는 나라이니 “타인이 어찌 차(此)를 취(取)치 아니하리오. 만약 기(其) 국(國)이 망하면 곧 기 민(民)의 죄라”면서 다가오는 망국의 책임을 인민들에게 돌리는 극단적인 논리까지 동원해 인민들의 애국심을 이끌어내고자 했던 것이다.

이광수에게도 이와 유사한 인식이 있었다. 『나의 고백』(1948)에 따르면 그는 오산학교 교사로 일하던 1910년 8월 29일에 한일병합 조서를 보고는 망국민의 설움에 잠겼다가 이내 학생들을 불러 모아 눈물로 예레미야애가를 낭독했다고 한다. 유대 민족이 바빌로니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한 것은 주의 죄를 어기고 거짓된 선지자들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성경을 읽은 이광수는 곧 “주는 옳으시니이다. 나는 주의 계명을 어기었나이다”<sup>15)</sup> 기도하며 “망국의 참경을 당하는 것이 다 제 죄인 것을 참회”했다. 물론 당시 이광수는 유대의 거짓 선지자들을 언급하며 위정자들

13) 「애국심」, 『만세보』, 1906.7.26.

14) 「애국성질」, 『대한매일신보(국한문)』, 1905.10.18.

15) 이광수, 「나의 고백」, 『이광수 전집』 7, 삼중당, 1974, 235면.



의 잘못도 동시에 지적했으며, 기실 식민화의 책임을 침략자가 아닌 인민들에게 묻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망국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 때 주권자의 위치에서 생각하고 느낄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떠올려 본다면, 망국에 대한 자책은 인민을 독립을 위해 헌신하는 국민으로 주체화하기에 효과적인 논법이기도 했다.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 심화시키는 것도 당시 논자들의 관심사였다. 1908년 11월 3일자 『황성신문』에는 「진(眞)애국자와 위(僞)애국자」라는 논설이 실린다. 이에 따르면 진실한 애국자는 “성심으로 국(國)을 애(愛)하고 열혈로 국을 애하”<sup>16)</sup>여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으며 “백절불회(百折不回)하고 만난불요(萬難不撓)하는” 반면, 거짓 애국자는 “국가사상이” 부재하는 소인이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열성을 보였어도 “관함(官脚)을 득하여 월봉을 식(食)하게 되면” 이내 애국심이 사그라지는 자이다. 애국심을 불굴의 정신과 현실에의 비타협성을 실천하는 충분조건으로 논리화함으로써 진정한 애국주체의 탄생을 도모한 이 글은 이후 1909년 5월 20일, 조선유학생 단체인 대한홍학회의 기관지 『대한홍학보』 3호에 이중우(李重雨)에 의해 「애국자의 진위를 논함」<sup>17)</sup>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실린다.

한반도의 근대 신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유학생들은 조선인민들의 애국심을 함양하는 일에 관심을 두었다. 물론 이광수도 예외가 아니었다. 메이지학원 보통부 중학 5학년 졸업을 앞둔 1910년 2월, 『대한홍학보』 10호에 발표된 「금일 아한청년과 정육」은 민족애에 대한 이광수의 견해가 드러난 최초의 글이다.

차(且) 부(夫) 궁촌벽항(窮村僻巷)에 생어장어(生於長於)하야 문자의

16) 「진애국자와 위애국자」, 『황성신문』, 1908.11.3.

17) 이 글은 『황성신문』의 논설을 약간 수정하기는 했으나 원래의 글과 내용상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지식과 도덕의 함양이 멀어(蔑如)한 자라도 능히 진정한 효심으로 부모를 사(事)하며 열렬한 동정(同情)으로 인리(鄰里)를 대하나니, 인리에 동정을 표하는 심법은 확이충지(擴而充之)하면 사회를 애(愛)할 것이오 국가를 애할 것이오 우(又)는 세계인류를 다—애호하리니, 차(此)는 여(余)의 망언이 아니어나와 우(又)는 차에 반하여 성경현전(聖經賢傳)에 기(其)두(頭)가 장대한 자도 불효박덕(不孝薄德)의 행(行)이 비비유지(比比有之)하니 하(何)로 이(以)함이고, 즉시 정적(情的) 관념의 심천후박(深淺厚薄) 여하에 재(在)함이로다.<sup>18)</sup>

정육론을 주창한 「금일 아한청년과 정육」에서 이광수는 문자를 모르고 도덕의 함양이 부족해도 열렬한 동정이 있다면 “사회”와 “국가”, 나아가 “세계인류”를 사랑하게 되리라고 주장했다. 인용문에 뒤에는 “열녀효부가 신산참혹(辛酸慘酷)한 고초를 무릅쓰고 “충신열사가” 절개를 굽히지 않고 의를 위해 죽는 것의 원동력은 “지력”, “건강”, “도덕”이 아니라 “정(情)의 역(力)”에 있다는 주장이 이어진다. 애국심을 강조하던 시대적 맥락을 고려할 때 이광수의 정육론은 지덕체가 아니라 지정의를 강조함으로써 감정의 지위와 문학의 가치를 확보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애국심의 배양을 통해 진정한 애국자를 양성하는 나름의 방법론이기도 했다.

주목할 것은 이광수가 동정심으로부터 애국심의 형성을 도모했다는 사실이다. 국가에의 소속감을 당위로 설정함으로써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한 공감을 유발하고 이렇게 촉발된 감정을 애국심으로 이념화하는 당시의 일반적인 논법과 견주어 볼 때 이광수와 같이 동정심으로 애국심을 조직하려는 방식은 다소 이질적이다. 인민으로 하여금 애국심을 가지게 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아마도 자긍심 고취일 것이다. 이순신과 같은 구국의 영웅이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수

18) 이광수, 「금일 아한청년과 정육」, 『초기 문장집』 I, 61면. 원문은 『대한홍학보』 10, 1910.2.’

한 성과를 낸 인물들을 접할 때 인민이 느끼는 감정은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으로 수월하게 전환된다. 앞서 언급했던, 성스러운 조상들이 개척한 “아세아 동반도의 낙원”과 같은 표현을 떠올려 봤을 때 이광수가 조선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논법에 무지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광수가 자긍보다 동정을 강조한 까닭은 우선 그의 선각자적 세대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 열강들의 한반도 쟁탈전에 무력하게 휩쓸려버린 대한제국의 현실을 목격하며 성장한 이광수는 자신을 비롯한 조선청년들을 부모 없는 세대로 인식했다. 「십팔세 소년이 동경에서 한 일기」에 따르면 정육론은 1909년 12월 23일에 작성되었는데,<sup>19)</sup> 그보다 약 한 달 전인 11월 8일에도 그는 “실로 조선인은 걱정이다. 대인물이 없”<sup>20)</sup>다고 일기장에 기록했다. 1910년 6월 『소년』지에 연재된 「금일 아한청년의 경우」에서도 그는 “우리들의 부로(父老)”<sup>21)</sup> “대다수는 거의 ‘앞이 없는 인물’, ‘합이 없는 인물’이니” 그들의 지도를 받을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우리들 청년은 피교육자 되는 동시에 교육자 되어” 스스로 “신대한 건설자 될” “자격을 양성”해야 하니, 조선청년들의 자각 여부에 “조선민족이 영(榮)하고 고(枯)하는 경계”가 있다는 그의 주장은 이후 「자녀중심론」(1918)에서 보다 구체화되었다. 존경하고 사숙할 만한 인물이 없는 조선에서 『소년』지의 필진으로 참가해 소년 계몽에 힘쓰고 오산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교육한 것은 동포를 향한 자신의 동정을 실천한 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인리에 동정을 표하는” 행위는 당대의 담론적 맥락을 고려할 때 ‘애국’보다는 ‘애민’에 가까웠다. 당시 언론에서는 ‘애국’뿐만 아니라

19) 이광수, 「십팔세 소년이 동경에서 한 일기」, 『초기 문장집』 I, 42면. 원문은 『조선문단』 7, 1925.4.

20) 이광수, 「일기—십육년전에 동경의 모중학에 유학하던 십팔세 소년의 고백」, 『초기 문장집』 I, 35면. 원문은 『조선문단』 6, 1925.3.

21) 이광수, 「금일 아한청년의 경우」, 『초기 문장집』 I, 109-111면. 원문은 『소년』 3-6, 1910.6.

‘애민’의 사례도 종종 소개했다. 1908년 12월 24일자 『대한매일신보』에 게재된 「최씨애민」을 보면, “고양군 일경(壹境)이” “의병과 일병(日兵)의 소요(騷擾)를” 겪은 후로 “환산(渙散) 지경에 달(達)한 인민(人民)이” 많은데 “해군수(郡守) 최항식 씨가 민정(民情)을 긍념(矜念)하여 공행촌려(躬行村閭)에 연봉보조(捐俸補助)하였”<sup>22)</sup>다는 내용이 나온다. 비슷한 시기에 동지에 실린 「고산수애민」은 “고산군수 리병민 씨가 그 고을 부중에 사는 백성이”<sup>23)</sup> “병이 있다 하면 밤중이라도 통인을 먼저 보내어 약 쓰기를 권하고” “위생 보호하기에 극진히 한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백성을 가엾게 여기는 군수의 미담을 소개한 이 기사들에서 알 수 있듯 ‘애민’은 국가보다는 민중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도 군수와 같이 지역 수장 격의 지위를 지닌 자의 감정으로 의미화 되었다. 애국보다는 애민, 즉 인민이 국가의 서사를 접할 때가 아니라 지도자급 인물이 불행한 사람과 마주할 때 촉발되는 감정을 민족애의 기초로 정립하려 한 이광수의 시도는 부모세대에게 문명애의 지식과 실천이 부재하다는 비판적 인식이 없었다면 수행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경술국치 이후 한반도의 언론에서 ‘애국’을 언급하기는 어려워졌지만 ‘애민’의 경우는 달랐다. 일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애민’은 ‘애국’과 달리 자신들의 선전활동에 유익했다. 조선총독부가 『대한매일신보』를 강제 매수해 발간한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1912년 8월 18일자 신문에는 「가전소장(家田所長)의 애민(愛民), 개성헌병소장의 애민」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다. 개성군 동면에 설립한 사람동흥학교에 학생 수가 적었는데 “헌병소장 가전언십랑(家田彦十郎) 씨가 교육을 발전할 생각으로”<sup>24)</sup> 수백여 명의 학생들을 모집했을 뿐만 아니라 인민들을 “관곡한 언사로써, 열심히 지도하며, 지극히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관내 인민이 “가전소장

22) 「최씨애민」, 『대한매일신보(국한문)』, 1908.12.24.

23) 「고산수애민」, 『대한매일신보』, 1908.8.30.

24) 「가전소장의 애민, 개성헌병소장의 애민」, 『매일신보』, 1912.8.18.

의 덕을 감복칭송한다”는 것이 기사の内容이다. 조선인 군수 대신 일본인 헌병소장이 들어간 것을 제외하면 ‘애민’에 관한 보도기사의 형식은 한일병합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1912년 8월 18일자 『매일신보』에는 “총독의 뇌중에”<sup>25)</sup> “여하(如何)하면 조선을 풍부히 할까하는 고심이 부절(不絶)할지니” 인민은 이에 감사하라는 내용의 사설인 「총독의 애민」이 실리기도 한다.

사정이 이러했기에 동정으로 애국심을 함양하고자 했던 이광수의 시도는 경술국치 이후에도 특별한 제재 없이 지속될 수 있었다. 경술국치 이전에 논자들이 진실한 애국자와 거짓된 애국자를 가르하고자 했던 것처럼, 이광수는 위대한 동정과 평범한 동정의 일별을 시도한다. 1914년 12월 『청춘』에 실린 「동정」에서 그는 우선 “야심적 위인과 박애적 위인”<sup>26)</sup>을 구분한다. 전자가 개인의 욕망을 위해 “동포를 희생하는 자”라면, 후자는 “동포(일국이나 전세계)를 위하여 제 몸을 희생하는 자”라는 것이다. 예수, 공자, 석가, 링컨, 마치니, 나이팅게일 등을 후자의 예시로 언급한 이광수는 이어서 위인의 동정과, 범인(凡人)의 동정을 구별한다.

범인에도 동정이 없음이 아니로되 그 범위가 극히 좁고 열으며 또 일시적이니, 위인의 동정은 넓고 일국과 세계와 우주만물에 미치되 범인은 겨우 제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에만 한하는지라. (중략)

범인은 이렇게 동정의 범위가 편협하므로 제 가족이나 친지 외에 사랑을 미칠 줄 몰라 자선이라든가, 헌신, 관서(寬恕)—며 공익의 의미와 귀한 맛을 깨닫지 못하니, 그는 민족이나 인류전체에게 아무 의무도 다할 자격이 없는 자—라.<sup>27)</sup>

25) 「총독의 애민」, 『매일신보』, 1912.8.18.

26) 이광수, 「동정」, 『초기 문장집』 I, 307면. 원문은 「『청춘』 3, 1914.12.’

27) 위의 책, 308-309면.

위인과 범인의 동정을 구분한 이광수는 “우리의 동정을 시험하라” 일갈함으로써 조선인민들의 동정심을 고조시키고자 했다. “길에 헐벗고 방황하는 고아를 볼 때에 그네를 어찌하면 구제할까, 이 모든 암담한 동족을 보고 어찌하면 그네를 문명하게 할까—이러한 생각이 낫던 적이 있”느냐고 독자들을 추궁하는 이광수의 모습에서 동정 혹은 애민으로서의 민족애는 보다 구체화된다. 근대소설의 효시로 일컬어지는 『무정』 역시 조선인들의 동정을 시험하는 텍스트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궁극한 박영채와 무정한 이형식을 병치하는 것으로 『무정』의 중심 구도가 설계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1917년 『매일신보』에 연재된 『무정』의 삼랑진 장면은 조선청년들의 애민담으로 요약된다. 범람한 물이 “사람 사는 촌중에까지 침입하여 사람들을 다 내몰고 방 안, 부엌, 벽장 할 것 없이 온통 점령”<sup>28)</sup>한 상황에서, 청년들은 김병욱의 주도 하에 수해민들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연다. “음악을 알아서 하려 함이 아니옵시다. 다만 여러 어른께서 동정을 줍시다 함이”<sup>29)</sup>라는 병욱의 말에서 확인되듯 동정심 유발이 이 음악회의 목적이다. 자발적으로 음악회를 개최해 모금한 금액을 사장에게 전달하는 청년들의 모습은 감동적이지만, 『매일신보』의 독자에게 이는 기시감을 느낄 만한 장면이기도 했다. 가령 1913년 7월 25일자 『매일신보』에는 「고립(苦霖)과 당국 애민」이라는 기사가 실린다. 극심한 장마로 각지에 피해가 속출하고 인명피해가 예상되자 “총독부에서는, 인부 삼십 인과, 기수를 파송하여, 방금 위험한 곳은 훼손하고, 그렇지 아니한 곳은 수축하”<sup>30)</sup>였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총독부나 헌병소장, 경찰서장이나 지방군수와 같은 관직자들이 아니라, 조선청년들이 주도하는 애민의 이야기를 전한 다음 『무정』은 그 유명한

28) 이광수, 『무정』, 문학과지성사, 2005, 445면.

29) 위의 책, 457면.

30) 「고립(苦霖)과 당국 애민」, 『매일신보』, 1913.7.25.

이형식의 연설 장면으로 이어진다. “하룻밤 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발발 떠는 그네들이 어찌 보면 가련하기도 하지마는 또 어찌 보면 너무 약하고 어리석어 보”<sup>31)</sup>이기에 그들에게 힘을 쥐야겠다고 결심한 이형식은 우선 수재민들을 향한 동정심을 병육, 영채, 선형과 공유한다. 그리고는 교육과 실천을 통해 문명이 없는 조선인민을 구제하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까닭임을 강조한다. 수재민들과의 마주침에서 촉발된 정동은 이렇게 민족애의 정서적 자원으로 환원된다. 자궁보다는 동정으로, 애국보다는 애민으로 형성된 민족애는 『무정』에서 조선청년들에게 성공적으로 전파되지만 동시에 그것은 일제에 위협적이지 않은 온순한 감정이라는 한계를 띠고 있었다.

### 3. 매체의 한계와 소거된 적개심

열렬한 동정이 있다면 이웃과 국가, 나아가 세계를 사랑하게 되리라는 이광수의 주장에서 나타나듯, 동정의 대상은 특정 집단을 넘어 전인류로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노예가 주인을 동정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인 것처럼, 일반적인 동정은 경계 없이 무제한적으로 발동하는 감정이 아니다. 국권을 피탈당한 조선인민의 입장에서 일제의 군국주의자들을 동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피지배자를 향한 뜨거운 동정은 곧 그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연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 동정으로 민족애를 구성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민족의 독립에 무익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최남선의 요청에 의한 것이기는 했지만,<sup>32)</sup> 1913년에 이광수가 해리엇 비처 스토포의 『앵글 톰스 캐빈』을 번역 출간했다는 사실은 그 역시 동정이

31) 위의 책, 460면.

32) 『검둥의 설움』의 서문에서 최남선은 “오래 두고 번역하기를 꾀하다가 끝내 외배의 손을 빌어 한 부분이나마 우리 글로 옮기기를 마”쳤다고 밝혔다. (『초기 문장집』 I, 153면.)

민족해방의 자원으로 활용 가능함을 인지했음을 방증한다.

『검둥의 설움』의 ‘머리말’에서 이광수는 이 책이 “능히 인류사회의”<sup>33)</sup> “노예문제를 해결하고 인류 역사에 큰 사실인 남북전쟁을 일으켜 몇 천만 노예로 하여금 자유의 사람이 되게” 했다면서 “글의 힘”을 강조했다. 『앵클 톰스 캐빈』이 미국의 노예제 폐지에 기여했던 것처럼, 이광수는 조선인 차별 철폐, 나아가 민족해방까지도 의식하며 이 책을 번역했을 것이다. 본래의 제목인 『앵클 톰스 캐빈』을 『검둥의 설움』으로 변경한 데서도 드러나듯 이광수는 우선 흑인 노예와 마주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의 동정심을 함양하고자 했다. 그런데 흑인 노예 중에서도 톰은 평범한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자신을 확대한 주인 레그리에 대해서도 “불쌍한 사람”<sup>34)</sup>이니 “그저 사랑”하라는 말을 남길 만큼 톰은 철저하게 기독교 사상을 실천하는 비범한 인물이다. 톰에게 깊이 감화된 조지 셸비가 자신의 노예들을 해방하는 장면을 『검둥의 설움』의 말미에 배치함으로써 이광수는 동정을 통한 해방의 가능성을 강조한다.

여러분은 자유로운 사람이요. 아무 테나 가고 싶은 데 가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일을 하실 수도 있소이다. 여러분이여, 이제는 자유의 사람이 되었으니 지식도 잘 닦고 인격도 높여 문명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오. 그러나 이것이 모두 다 톰의 은혜인 줄을 잊지 마시오.<sup>35)</sup>

잔혹한 노예 농장주 레그리마저 용서하고 동정하는 톰의 모습은 예수의 수난과 박해를 떠올리게 할 만큼 지나치게 이상적이다. 게다가 동정의 해방적 정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셸비 부부 및 그의 아들 조지

33) 이광수, 『검둥의 설움』, 『초기 문장집』 I, 151면. 원문은 ‘피쳐 스투우 원저, 리광수 초역, 『검둥의 설움』, 신문관, 1913.2.’

34) 위의 책, 244면.

35) 위의 책, 247면.



셀비와 같이 친절한 대농장 경영주의 시혜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백하다. 또 다른 노예인 조지 해리스는 톰과 달리 “아메리카는 원수의 땅이라 오래 있지 못할” 것을 분명히 한다. “어서 정다운 아프리카에 돌아가 수천만 어리석고 불쌍한 동포를 가르치고 깨우쳐 남과 같은 문명한 사람을 만든 후에, 자유롭고 거룩한 나라를 일으켜 세계상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 다른 민족과 같이 되어 국제회의에 말 내는 권리를 얻”<sup>36)</sup>겠다는 포부를 품고 “리베리아 공화국”으로 향하는 조지 해리스의 동정심은 원수가 아니라 동포를 위한 것으로 그 대상이 한정된다. “한 걸음 더 내켜서는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세계 민족을 이끌고 먹이는 목자가 되게 하”겠다고도 하지만, 조지 해리스에게는 분명 인류애보다 민족애가 우선이었다.

이광수는 동정의 대상을 무한정 확장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을 인지했다. 동정의 한계에 대한 그의 생각이 반영된 작품으로는 1914년 12월 『새별』 15호에 게재된 「물나라의 배판」이 있다. 『새별』은 신문관에서 약 2년여에 걸쳐 당시 “중등학교 정도의 독자를 대상으로”<sup>37)</sup> 간행한 잡지이다. 육지와 “물나라”가 분할된 유래를 다루는 우화인 「물나라의 배판」은 우선 학생들의 유희를 위해 제공된 독서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우화가 독자들에게 작가의 사상과 지향을 암시적으로 전달하기에 적합한 장르라는 점 또한 감안할 필요가 있다. 고래, 물개, 수달, 낙지 등의 동물들이 자신은 왜 육지에 살지 못하는지, 자신의 생김새는 왜 이러한지 등을 따져 묻고 이에 물검(水神)이 대답하는 것까지가 흥미를 위한 것이라면, 작품 후반부에서 인간의 낚시에 희생되는 준치의 이야기는 동정에 대한 이광수의 생각을 우회적으로 반영한다.

준치의 실종 이후 잉어(鯉魚)가 나서서 “저의 사람 겨레끼리는 혹 덕도

36) 위의 책, 246면.

37) 박영기, 「1910년대 잡지 『새별』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22, 한국아동문학학회, 2012, 94면.

있을지 모르나 “다른 종족에게야 다른 동물에게야 덕이 다 무엇이”<sup>38)</sup>라며 인간을 탓하자, 이에 물검은 인간을 동족에서 제외하며 자위상 그들에게 대적해야 한다는 통문을 작성한다.

첫째 우리는 눈물을 뿌리어 사람겨레를 우리 동족중에서 제외할지니 따라서 우리는 그네를 믿고 사랑할 의무가 없으며, 둘째 우리는 자위상 그네에게 대하여 적대행위를 하여야 할지니 따라서 그네의 모든 행위는 우리를 해할 행위로 간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피를 보기에까지 이를 지라.<sup>39)</sup>

톰과 같이 무한한 동정으로 노예를 해방시키는 서사는 「물나라의 배판」에서 반복되지 않는다. 이처럼 동족의 경계를 설정하고 적대자와의 혈투를 옹호하는 논법을 보면 이광수의 동정이 무조건적인 비폭력주의와 결합하지 않으며, 그의 민족애 또한 언제든 적개심과 결부될 수 있는 감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가 정립한 동정의 민족애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킨다.

앞서 민족애를 형성하기 용이한 방식으로 영웅적 인물과의 점점 마련을 통한 자긍심 고취를 언급했는데, 그만큼이나 유력한 또 하나의 방식은 바로 적개심을 자극하는 것이다. 내부적 요인이 아무리 심각하다 하더라도 일국이 식민화되는 결정적 책임은 타국에게 있기에 나라 잃은 인민의 민족애는 곧 침략국에 대한 분노와 무관할 수 없다. 경술국치 전후로 이광수에게 축적된 일제에의 적개심은 그의 글 곳곳에 흔적을 남겼다. 1909년에 작성하여 1925년 3월 『조선문단』 6호에 소개된 「일기—십육년전에 동경의 모중학에 유학하던 십팔세 소년의 고백」에서 그는 메이지

---

38) 이광수, 「물나라의 배판」, 『초기 문장집』 I, 333면. 원문은 ‘물나라의 배판」, 『세별』 15, 1914.12.’

39) 위의 책, 334면.

학원 예배시간의 기도는 “모두 하나님을 부끄러우시게 하는 것뿐이다. ‘대일본제국을 애호하시옵소서. 이토공 같은 인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골게. 골게. 그리고도 그들은 기독교신자라고 한다. 헛바닥은 아무렇게 도는 것이”<sup>40)</sup>라며 일본인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와세다대학생 시절 이광수는 1916년 4월 발행된 일본 잡지 『홍수이후』 9호에 익명으로 「조선인의 눈에 비친 일본인의 결함」(1916)을 투고하기도 했다. 비록 잡지사의 불허로 게재되진 않았지만 당시 관현의 기록에 따르면 이 글은 “전문이 거의 매도적인 문구로 이루어져 있고, 그들이 항상 마음에 품은 이른바 배일사상을 나열한 것”<sup>41)</sup>으로 평가된다. 부분적으로 인용된 문장을 보면 그는 “일본인은 조선인을 냉대할 뿐 아니라 나아가 직업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아 아사시키려 하고 있다. 일본인은 우리 조선인에게는 어디까지나 기생충과 같다”라고까지 표현했다. 이러한 사례들을 고려할 때 이광수가 민족애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일제를 향한 적개심을 배제한 것은 식민지 현실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광수는 매체 한계 내에서의 글쓰기를 일찍이 체득한 작가이다. 훗날 「여의 작가적 태도」(1931)에서도 그는 자신이 소설을 쓰는 근본 동기가 “민족의식, 민족애의 고조, 민족운동의 기록, 검열관이 허하는 한도의 민족운동의 찬미,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선동, 이것을 과거에만 나의 주의가 되었을 뿐이 아니라 아마도 나의 일생을 통할 것이라고 믿는다”<sup>42)</sup>고 말했다. ‘검열관을 의식하는 글쓰기’는 1930년대 이후의 이광수 글쓰기에만 적용되는 특징이 아니다. 전술한 「조선인의 눈에 비친 일본인의 결함」의 게재 불허와 같은 경험을 통해 이광수는 식민지민의 한계를 체감하며

40) 이광수, 「일기—십육년전에 동경의 모중학에 유학하던 십팔세 소년의 고백」, 『초기 문장집』 I, 35면. 원문은 ‘춘원, 『조선문단』 6, 1925.3.’

41) 「조선인의 눈에 비친 일본인의 결함」, 『초기 문장집』 II, 779면. 원문은 ‘朝鮮人概況 第一」, 『特高警察關係資料集成 第32卷』, 2004, 57면.’

42) 이광수, 「여의 작가적 태도」, 『이광수 전집』 10, 삼중당, 1974, 462면. 원문은 ‘『동광』 20, 1931.4.’

논변과 창작 등의 글쓰기를 이어나갔다. 일제의 자장 하에서 형성된 그의 민족애에서 적개심이 소거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매일신보』에 연재된 『무정』은 총독부 기관지라는 매체의 특성상 「물나라의 배판」이 될 수 없었다. 게다가 우화라는 우회적 형식을 빌리지도 않았기에 『무정』에서 이광수는 일제에 대한 적개심을 유발한 만한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다. 추악한 가해자의 전시를 통해 독자들에게 적대적 정동을 촉발하고 그것을 식민지 조선의 현실과 결부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이광수는 『무정』에서 일본인이나 일제의 공권력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았다. 박영채가 대동강에 몸을 던지려 평양행 기차를 탄 이후에 이를 걱정하는 노파에게 이형식은 “어저께 전보를 놓았으니까, 아마 경찰서에 가 있겠지요”<sup>43)</sup> 하며 경찰에 대한 신뢰를 드러낸다. 삼랑진에서 김병욱이 자선음악회를 열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협력을 구할 때도 서장은 어떠한 악의도 없이 병욱의 뜻에 “지극히 감복”<sup>44)</sup>할 뿐만 아니라 “당국에서도 구제 방침을 연구하던 중이”라고 말한다.

『무정』에서 동정할 수 없는 대상은 방탕한 김현수와 타락한 배명식 학감인데 이들은 모두 경성학교주이자 조선귀족인 김남작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배학감은 학생의 상벌을 불공평하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교주 김남작의 발을 밟고 똥을 먹으며 독일식 정탐견 노릇”<sup>45)</sup>을 하는 인물이며, 김현수는 김남작의 아들로서 호의호식한다. 경술국치 이후 일제는 ‘조선귀족령’을 공포해 조선인 귀족집단을 만들었는데 이는 식민통치의 정당화에 이들을 동원하기 위한 방침이었다.<sup>46)</sup> 김남작은 소설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의 아들과 그에게 신용을 얻은 자가 조선청년 교육을 저해할

43) 이광수, 『무정』, 앞의 책, 214면.

44) 위의 책, 455면.

45) 위의 책, 86면.

46) ‘조선귀족’의 선정 기준, 내용, 수작자들의 행태 등에 대해서는 ‘이용창, 「일제강점기 ‘조선귀족’ 수작 경위와 수작자 행태-대한정책의 순응과 대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3,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2, 331-371면.’ 참조.

뿐만 아니라 패륜을 일삼는 부도덕한 인물이라는 설정은 김남작에게 작위를 수여한 총독부에 대한 비판적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였다. 그러나 독자들이 김현수와 배학감에 대한 적대의 정동을 느꼈을지언정 『무정』의 서사는 그것을 일제에 대한 적개심으로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았다.

조선을 식민화한 일제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은폐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광수의 민족애는 기형적으로 형성되어갔다. 이러한 한계는 1919년 1월 「조선청년독립단선언서」를 기초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극복될 수 있었다.

#### 4. 민족애를 위협하는 사랑

동정심에 기반을 둔 애민의 민족애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가련한 조선 인민과의 지속적인 마주침이 필요하다. 그런데 도일한 조선유학생에게는 이처럼 긍측한 조선인민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다. 게다가 청년 유학생에게 가장 자극적인 문제는 기실 민족보다 사랑이었다. 민족애가 공적인 감정이라면 사랑은 사적인 감정이다. 정육론을 주창하기 시작했을 때 이광수는 사랑이 민족애를 위협하게 되리라는 것을 명확히 예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민족애의 촉발과 전파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그는 사랑과 민족애 사이의 적절한 관계 설정이라는 난제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광수는 자신의 첫 번째 작품 「사랑인가」(1909)를 메이지학원 보통부 시절에 완성해 『백금학보』 19호에 게재했다. 조선유학생 문필이 “벗을 갖지 못하는 비애”<sup>47)</sup>로 괴로워하다 마사오와의 유의미한 관계 형성에

47) 이광수, 「사랑인가」, 『초기 문장집』 I, 52면. 원문은 ‘韓國留學生 李寶鏡, 「愛か」, 『白金學報』 19, 1909.12.’

실패해 자살한다는 것이 서사의 골자인 「사랑인가」에서 문길이가 마사오를 처음 본 순간은 인상적으로 묘사된다. 이때 문길이의 신체는 극적으로 활성화된다.

그때 그 소년의 얼굴에는 사랑스러운 빛깔 넘치고, 눈에는 천사의 미소가 떠올고 있었다, 그는 황홀하여 잠시 자기를 잊고 그의 가슴속에 타오르는 불꽃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이 소년이 곧 미사오다. 그는 이 사람이야말로, 라고 생각했다.

그는 편지로 자기의 마음속을 미사오에게 이야기하고, 또 사랑을 구했다.<sup>48)</sup>

마음을 나눌 벗이 없어 외롭고 침울하던 문길이는 마사오를 만나고 “가슴속에 타오르는 불꽃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신체의 변화를 경험한다. 그러나 마사오가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았기에 문길이는 보다 깊은 번민에 잠긴다. 문길이가 경험하는 감정은 급우간의 일반적인 우정으로 정의하기에는 너무나 강렬했다. “늙은 조부와 어린 누이는 얼마나 탄식할까”<sup>49)</sup> 걱정하면서도 문길이는 “지금 죽고 사는 것은 전혀 나의 힘 밖에 있는 것”이라며 시부야 철도 건널목에 몸을 누인다.

「사랑인가」와 정육론은 모두 1909년 후반에 구상되었지만 양자의 성격은 판이하다. 유학생의 비애를 표현한 「사랑인가」가 자유로운 작가의 작품이라면, 조선인의 감정 교육을 주장하는 정육론은 애국지사의 글쓰기이다. “오늘까지의 일기는 기독교적인 암전한 일기일러니 오늘부터의 일기는 악마적인 우락부락한 일기”<sup>50)</sup>라는 그의 일기에서도 나타나듯 이 시기 이광수는 홍명희의 추천으로 바이런을 접한 후 바이런주의와 톨스토

---

48) 위의 책, 53면.

49) 위의 책, 54면.

50) 이광수, 「일기—십육년전에 동경의 모중학에 유학하던 십팔세 소년의 고백」, 앞의 책, 32면.

이즘 사이에서 고뇌했다.<sup>51)</sup> 당시 이광수의 내면세계를 전시하는 「김경」(1915)에서 두 입장은 이렇게 정리된다. “가끔 술을 마시고 이성의 애(愛)를 구하니 ‘바이론이즘’이오, 그러다가도 정(正)과 의(義)의 용사되기를 갈구하니 ‘톨스토이즘’이라.”<sup>52)</sup> 1910년 1월 12일 이광수는 “문학자가 될까” 하며 “조선에는 아직 문예라는 것이 없는데, 일본문단에서 기를 들고 나설까”<sup>53)</sup> 고민하기도 했으나 결국 메이지학원 졸업 후 조선에 돌아와 오산학교 교원이 되었다.

비록 문명제국 일본에서 작가로 인정받는 길 대신 고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의 길을 택했으나 이성의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은 이광수의 내면에 잔존했다. 톨스토이즘으로 바이런주의를 해소시킬 수 없었던 그에게 민족애와 사랑의 불화는 언제든 표출될 수 있었다. 「사랑인가」의 문길은 그저 “만세 후의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이름을 흠모케 하고 싶다는”<sup>54)</sup> 개인적 야심이 꺾였을 뿐이지만, 1918년 4월 『청춘』 13호에 발표된 「윤광호」에서는 애정결핍의 문제가 민족애의 중요성을 희석시켜버리는 문제적 양상이 재현된다.

광호는 막연히 인류에 대한 사랑, 동족에 대한 사랑, 친우에 대한 사랑, 자기의 명예와 성공에 대한 갈망만으로는 만족치 못하게 되었다. 그는 누구나 하나를 안아야 하겠고 누구나 하나에게 안겨야 하겠다. 그는 미지근한 추상적 사랑으로 만족치 못하고 뜨거운 구체적 사랑을 요구한다. 그의 공동은 이러한 사랑으로야만 진충(填充)하겠고 그의 적막과 비애는 이러한 사랑으로야만 위안하겠다.<sup>55)</sup>

51)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1, 한길사, 1999, 239-246면.’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52) 이광수, 「김경」, 『초기 문장집』 I, 364면. 원문은 『청춘』 6, 1915.3.’

53) 이광수, 「십팔세 소년이 동경에서 한 일기」, 앞의 책, 45면.

54) 이광수, 「사랑인가」, 앞의 책, 52면.

55) 이광수, 「윤광호」, 『초기 문장집』 I, 279면. 원문은 『청춘』 13, 1918.4.’

동경 K대학 경제과 2학년 특대생으로 조선유학생의 명예를 드높인 윤광호는 동경에서 조선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우등생이다. 그러나 그는 불행한 조선인민을 동정하는 것보다 “전차 속에서 아름다운 소년소녀를 보고 캐미의 감정을 얻는 것으로 유일의 위안을 삼”<sup>56)</sup>는다. 민족애로 만족하지 못하는 윤광호는 P를 사랑하게 되지만 그에게 지나치게 몰두하다보니 “이주 내약하고 침울한 청년이 되고”<sup>57)</sup> 한다. P에게 거절당한 윤광호는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이에 그의 상급 동창이었던 김준원은 윤광호가 생전에 따뜻한 애정의 맛을 보지 못했다면서 그의 무덤 목비에 “빙세계에서 나고 빙세계에 살다가 빙세계에 죽은 윤광호지묘”<sup>58)</sup>라 쓴다.

사랑의 실패가 민족애를 지닌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 만큼 중대한 문제라고 인식한 이광수는 우선 천재를 향한 대중의 칭찬을 독려한다. 1917년 4월 『학지광』 12호에 발표한 「천재야! 천재야!」에서 그는 천재가 “사회를 근심하고 사랑하는 충정으로, 사회에게 가치를 주”<sup>59)</sup>지만, 겸손하여 자기가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자비자굴(自卑自屈)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회에서 천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광호의 고백을 받은 P는 귀하가 재지(才地)만 있고 황금과 용모가 없으니 사랑을 구할 자격이 없다며 거절 의사를 밝히는데, 이에 윤광호는 “천재는 최말(最末)이라, 천재는 사랑을 구할 자격이 없다”<sup>60)</sup>며 광적으로 자기를 비하한다. 김준원이 당신 때문에 광호가 죽었다며 P를 비난하는 결말부를 보면, 민족애를 지닌 조선의 천재를 보호하고자 이광수가 작성했던 「천재야! 천재야!」의 주장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광수는 민족애를 지닌 주체가 사랑 때문에 겪는 심정적 고통을 해소

56) 위의 책, 278면.

57) 위의 책, 280면.

58) 위의 책, 289면.

59) 이광수, 「천재야! 천재야!」, 『초기 문장집』 I, 302면. 원문은 ‘『학지광』 12, 1917.4.’

60) 이광수, 「윤광호」, 앞의 책, 282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족애에 해가 되지 않도록 사랑을 적절하게 관리하려고까지 했다. 여기서 오누이라는 관계 설정을 통해 사랑을 유사가족애로 전환시키는 논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17년 7월부터 11월까지 『청춘』에 연재된 「어린 벗에게」에서는 애인을 누이로 명명하려는 시도와 그 어려움이 나타난다. 임보형은 “정신적으로 동포민족에게 선영행(善影響)을”(61) 끼치면 죽어서도 자신의 정신이 동포에게 살아있으리라 믿으며, 동시에 “내가 남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쾌락과 남이 나를 사랑하여 주는 데서 오는 쾌락을 아”(62)끼는 인물이다. 민족애와 사랑을 모두 중시하는 그는 와세다대학 시절 친구 김일홍의 매씨 김일련을 알게 되자 일련에게 “누이가 오라비에게 하는 그대로”(63)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해 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다. 이후 기혼자인 자신이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죄는 아닌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면 보형은 일련을 누이가 아니라 이성으로 대했음을 알 수 있다.

「어린 벗에게」는 보형이 “사랑하는 벗”에게 고백하는 형식을 취하는 서간체 소설이다. 편지의 수신자인 “어린 벗”은 소설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지만 보형을 지극히 간호해 준 적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64) “사랑하는 그대의 손으로 깎은 무를 먹는 맛은 선도—만일 있다 하면—먹는 맛이”(65)었다는 서술에서 암시되듯 수신자와 보형은 연인관계처럼 보인다. 그러나 말하자면 「어린 벗에게」는 연인에게 다른 이성에 대한 마음을 아무렇지 않게 고백하는 텍스트인 셈인데, 이처럼 기이한 설정이 가능했던 까닭은 편지의 수신인이 연인이 아니라 ‘어린 벗’으로 정의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설 말미에 소백산 삼림을 지나는 기차에서 “김양과 내가 장

61) 이광수, 「어린 벗에게」, 『초기 문장집』 I, 328면. 원문은 ‘『청춘』 9·10·11, 1917.7·9·11.’

62) 위의 책, 331면.

63) 위의 책, 349면.

64) 「어린 벗에게」의 수신인의 문제와 서술적 맥락에 대해서는 ‘강현국, 「욕망과 환상—어린 벗에게」론」, 『비평문학』 42, 한국비평문학회, 2011, 12-15면.’ 참조.

65) 이광수, 「어린 벗에게」, 앞의 책, 329면.

차 어떠한 관계로 웃을는지 울는지도 나는 모<sup>66)</sup>른다고 말하는 것을 봤을 때, 보형은 수신자의 경우와 달리 일련과 자신의 관계만큼은 오누이로 한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어린 벗에게」를 보면 이성을 향한 사랑을 누이를 향한 친족애로 전환시킨다는 발상은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무정』에서 이광수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결말을 제시한다. 여기서 우선 주목해야 하는 것은 형식과 계향의 관계이다. “남의 처녀를 볼 때마다 늘 생각하는 버릇으로 ‘내 누이’라고 생각<sup>67)</sup>하는 형식은 대동강에 몸을 던지려 간 영채를 구하러 평양에 가지만 그녀를 찾는 대신 어린 기생 계향을 만난다. 형식은 계향과의 대화와 가벼운 신체 접촉에서 “그렇게 미묘하고 자릿자릿한 쾌미를 깨닫기는 처음이라<sup>68)</sup>” 한다. 계향의 눈에서는 “알 수 없는 광선을 발하여 사람의 정신을 황홀하게 하고 그 살에서는 알 수 없는 미묘한 분자가 뛰어나 사람의 근육을 자릿자릿하게” 한다고 형식은 생각한다. 신체적 변용에 대한 형식의 감각은 성애의 발현을 짐작케 한다.

불쌍한 영채를 동정해야 마땅한 상황이지만 형식은 계향과의 식사를 통해 “오랫동안 영채의 일로 근심하고 슬퍼하고 답답하여하던 마음을 거의 다 잊어<sup>69)</sup>버리고 만다. 자극적인 성애로 민족애가 식어버리는 형국인데, 여기서 계향이 누구냐는 신우선의 질문에 형식은 “내 누이”라 답하고, 계향은 형식을 “오빠”라 칭한다.

“오빠의 얼굴도……” 하고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더 숙이고 말을 다 하지 못한다. 계향은 아까 형식이가 자기를 ‘내 누이일세’ 하던 것을 생각한다. 형식이가 계향에게서 들으려던 말은 이 ‘오빠’란 말이었다.<sup>70)</sup>

---

66) 위의 책, 375면.

67) 이광수, 『무정』, 앞의 책, 226면.

68) 위의 책, 229면.

69) 위의 책, 235면.

70) 위의 책, 241면.

둘의 관계가 유사친족인 오누이로 명명됨에 따라 계향을 향한 형식의 성애적 사랑이 민족애로 승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하지만 형식은 계향과 동행하면서 영체를 향한 동정심을 망실하고 만다. 영체 찾기를 포기하고 경성으로 향하면서도 형식은 “다만 계향을 떠나는 것이 서운할 뿐이요 영체를 위하여서는 별로 생각도”<sup>71)</sup> 하지 않는다. 오누이라는 관계 설정을 통해서도 사랑을 민족애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무정한 조선청년이 유정하게 되는 것을 지향하는 이광수는 계향과 형식 사이에 촉발된 성애적 사랑의 가능성을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극단적 결말을 제시한다. 소설의 말미에서 계향은 “어떤 부잣집 방탕한 자식의 첩이 되어 갔다가 매독”<sup>72)</sup>에 걸리고 남편한테 쫓겨나 말도 못하게 초취해졌다는 잔혹한 후일담이 전해진다. 한때 형식의 신체를 자극했던 계향을 민족애의 함양에 아무런 저해가 되지 못하는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다.

계향과 달리 선형의 경우는 오누이라는 관계 설정을 통해 사랑을 유사친족애로 관리하는 데 성공한 사례이다. 김장로의 뜻에 따라 형식과 선형 사이에 약혼담이 오가자 형식은 “영체가 마침 죽은 것이 다행이다 하는 생각까지”<sup>73)</sup> 하면서 “사랑하던 미인과 일생에 원하던 서양유학”의 기회를 얻었음에 크게 기뻐한다. 계향이 그러했던 것처럼 선형 또한 형식에게서 영체를 향한 동정심을 일시적으로나마 해소시키는 인물이다. 그러나 선형을 약혼자로 맞이하여 미국으로 떠나는 길에 우연히 영체를 만난 형식은 다시금 영체를 향한 동정심을 회복한다. 형식은 선형과 자신의 관계를 “민족의 이상도 서지 못한 세상에 인도하는 자도 없이 내던짐이 된 오라비와 누이”<sup>74)</sup>로 정의함으로써 그녀를 향한 감정을 가족애로 확정한다.

71) 위의 책, 249면.

72) 위의 책, 472면.

73) 위의 책, 293면.

74) 위의 책, 433면.

형식의 생각에 선형은 자기의 아내라고 하는 것보다 같이 손을 끌고 길을 찾아가는 부모 잃은 누이라는 생각이 난다.

옳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배우러 간다. 네나 내나 다 어린아이므로 멀리멀리 문명한 나라로 배우러 간다. 형식은 저편 차에 있는 영채와 병옥을 생각한다. ‘불쌍한 처녀들!’ 한다.

이형식은 선형과의 관계를 부부나 연인이 아니라 오누이로 정의한 다음 이어서 영채와 병옥마저 “불쌍한 처녀들”로 인식한다. 영채와 달리 병옥은 형식이 동정할 만큼 불행한 인물이 아니지만 이광수는 이형식과 세 여성의 관계를 동정심이 고조되기에 적합한 관계로 조정한다. 선형과 영채, 그리고 병옥까지 ‘불쌍한 조선 여인’으로 명명됨에 따라 형식의 내면에서 사랑과 민족애, 양자 간의 갈등은 성공적으로 해소된다. “지나간 세상을 조상하는 『무정』을 마”<sup>75)</sup>칠 때의 형식은 민족애를 실천하는 주체로서의 면모만 보여줄 뿐, 더 이상 사랑 때문에 갈광질광하지 않는다.

## 5. 결론

민족애는 영속적이고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언어적 힘의 개입 속에서 형성되고 변이되는 역사적 감정이다. 경술국치 이전 근대 신문들은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시조나 보도, 논설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했다. 언론은 식민화의 원인을 인민들의 애국심 부재에서 찾기도 했으며 이는 이광수의 인식과도 일맥상통했다. 그런데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한 공감을 통해 민족애를 촉발시키는 일반적인 논법과 달리 이광수는 동정의 함양을 통해 민족애를 형성하고자 했다. 선각자적 세대의 의식을 지녔던 이광수의 민족애는 당대적 맥락에서 봤을 때 ‘애국’보다는

---

75) 위의 책, 473면.

‘애민’에 가까웠다. 이광수는 자공보다는 동정으로, 애국보다는 애민으로 민족애를 형성했는데 이는 일제에 위협적이지 않다는 한계를 띠고 있었다.

이광수는 동정의 해방적 가능성을 인지했지만 동시에 그것을 무한정 확장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도 간과하지 않았다. 「물나라의 배판」에서 그는 동족의 경계를 설정하고 동정 대신 혈투의 논법을 암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제에 대한 적개심을 지녔음에도 매체의 한계를 의식한 그는 적개심이 소거된 민족애를 구성해 나갔다. 또한 사랑과 민족애의 반목을 인지한 그는 사랑의 감정을 유사가족애로 전환시켜 민족애의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애인을 누이로 환원시키는 일은 일견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광수는 『무정』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결말을 제시한다. 동정심의 함양, 적개심의 소거, 그리고 사랑의 관리를 통해 1910년대 이광수는 애민의 민족애를 형성했다.

1919년 1차 세계대전 이후 열린 파리 강화회의에서 월슨의 민족자결주의가 제창됨에 따라 이광수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조선의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일말의 기대를 얻는다. 식민지민으로서의 매체적 한계를 극복한 문건인 「2.8독립선언문」에서 이광수는 한일병합이 우리 민족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며, 민족자결주의를 우리 민족에게도 적용해 주기를 요청하면서 이러한 요구가 거절될 경우 “일본에 대하여 영원의 혈전을”<sup>76)</sup> 선언한다고 썼다. 선언문에서 이광수는 일본을 동정의 대상으로 서술하지 않았다.

이후 이광수는 상해로 탈출하지만 그가 형성한 애민의 민족애를 떠올려 볼 때 그에게 조선인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한반도로 돌아오는 일은 필연적이었다. 과거 오산학교를 떠나 한만 국경을 넘었던 그는 1914년 5

76) 조선청년독립단, 「배계/민족대회소집청원서/선언서」, 『초기 문장집』 II, 773면. 원문은 ‘日本 外務省 1919年 2月 10日 接收 日本 外務省 外交史料館 所藏文書 「1919年(大正 8) 1月 -3月 不逞團關係雜件」’

월, 대한인국민회 시베리아 지방총회 기관지인 『대한인정교보』 10호 ‘우리주장’란에 「애국심을 잘못 고취하였다」는 글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글에서 그는 물론 민영환과 안중근은 우리가 공경할 만한 인물들이지만 “우리 애국하는 청년 중에 민총정, 안의사 되려는 청년은 혹 있다 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초학 훈장이나 동네 집사 노릇 하려는 이는 하나도 없”<sup>77)</sup> 다면서 누구나 대장이 되려 하는 것은 “잘못된 애국심”이라고 지적했다. 이광수의 민족애는 가르치고 돌봐야 할 가련한 조선인민이 주변에 있을 때에만 지속될 수 있는 감정이었다. 1921년 3월, 단신으로 상해를 떠나 압록강을 건넌 이광수는 이제 3·1운동 이후의 시점에서 새로운 민족애의 길을 모색한다.

---

77) 이광수, 「애국심을 잘못 고취하였다」, 『초기 문장집』 I, 420면. 원문은 ‘『대한인정교보』 10, 1914.5.1.’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최주한, 하타나 세츠코, 『이광수 초기 문장집』 I·II, 소나무, 2015.  
 이광수, 『이광수 전집』 1~10, 삼중당, 1974.  
 이광수, 『무정』, 문학과지성사, 2005.

『대한매일신보』, 『만세보』, 『황성신문』, 『매일신보』

2. 논문

강현국, 「육망과 환상 — 「어린 벗에게」론」, 『비평문학』 42, 한국비평문학회, 2011, 7-33면.  
 김경미, 「1910년대 이광수 단편소설의 ‘정’의 양가성 연구」, 『어문학』 89, 한국어문학회, 2005, 233-257면.  
 김민수, 오경환, 「감정과 정동 사이 — 감정의 역사화를 위한 방법론적 시론」, 『역사와 경계』 111, 부산경남사학회, 2019, 1-28면.  
 김행숙, 「이광수의 감정론」, 『상허학보』 33, 상허학회, 2011, 69-99면.  
 김현주, 「문학·예술교육과 ‘동정(同情)’ — 이광수의 『무정』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12, 상허학회, 2004, 167-193면.  
 박성태, 「조선청년의 ‘동정(同情)’ 함양을 위하여, 혹은 공감에서 연민으로 미끄러지는 ‘동정’ — 1910년대 이광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78,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23, 83-114면.  
 박영기, 「1910년대 잡지 『새별』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22, 한국아동문학학회, 2012, 89-121면.  
 배개화, 「이광수 초기 글쓰기에 나타난 ‘감정’의 의미」, 『어문학』 95, 한국어문학회, 2007, 349-376면.  
 소영현, 「감정연구의 도전 — 흐르는 성찰성과 은폐된 미래」, 『한국근대문학연구』 34, 한국근대문학학회, 2016, 381-410면.  
 신수경, 「감정교육과 근대남성의 탄생」, 『여성문학연구』 15, 한국여성문학학회, 2006, 229-260면.  
 윤영실, 「노예와 정(情) — 이광수의 『검둥의 설움』 번역과 인종/식민주의적 감정론 너머」, 『사이』 33,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2, 185-225면.  
 이만영, 「특집: 센터멘탈 이데올로기 — “이광수”라는 과제: 근대적 읽기 관습의 창출

- 과 계도적 미학의 길-이광수의 문학과 『무정』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5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3, 139-167면.
- 이명호, 「문화연구의 감정론적 전환을 위하여 — 느낌의 구조와 정동경제론 검토」, 『비평과 이론』 제20권 1호, 한국비평이론학회, 2015, 113-139면.
- 이수형, 「1910년대 이광수 문학과 감정의 현상학」, 『상허학보』 36, 상허학회, 2012, 183-217면.
- 이수형, 「이광수 문학에 나타난 감정과 마음의 관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4,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 317-335면.
- 이용창, 「일제강점기 ‘조선귀족’ 수작 경위와 수작자 행태 — 대한정책의 순응과 대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3,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2, 331-371면.
- 이원동, 「『무정』의 감정 체계와 순애라는 질문」, 『우리말글』 85, 우리말글학회, 2020, 219-247면.
- 최다정, 「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건전함/불량함의 감성구조 — 「윤광호」(1918)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46, 이화어문학회, 2018, 131-153면.
- 최주한, 「제국의 근대와 식민지, 그리고 이광수 — 제2차 유학시절 이광수의 사상적 궤적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6권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421-446면.
- 최창근, 「일제강점기 동정 담론의 변천과 함의 — 이광수와 김동인을 중심으로」, 『감성연구』 17,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8, 43-66면.

### 3. 단행본

-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1·2, 한길사, 1999.
- 박현호 편저, 『센터멘탈 이광수 — 감성과 이데올로기』, 소명출판, 2013.
-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옮김, 『정동 이론』, 갈무리, 2015.
- 브라이언 마수미, 조성훈 옮김, 『가상계 — 운동, 정동, 감각의 아쌍블라주』, 갈무리, 2011.



## &lt;Abstract&gt;

## The Love for the Nation as the love for the people – Focusing on Yi Kwang-su's early sentences (1908~1919)

Park, Seong-tae

National love is not permanent and unchanging, but is a historical emotion that is formed and transformed through the intervention of various political, social, and linguistic forces. Before and after the annexation of Korea and Japan, Yi Kwang-su tried to form national love by cultivating sympathy. This was different from the general argument that national love is formed through reactions to the rise and fall of the nation. When viewed in the context of the time, his love for the nation was closer to ‘love for the people’ than ‘patriotism’. He formed his love for the nation through sympathy rather than pride, and love for the people rather than patriotism, but this had the limitation of not being a threat to Japanese imperialism. He recognized the liberating potential of sympathy, but at the same time did not overlook its practical limitations. Although he had hostility toward the Japanese, he was conscious of the limitations of the media environment, so he created a love for the nation that eliminated the hostility. Also, recognizing the antagonism between a lover's love and national love, he tried to convert the feelings of love toward his lover into quasi-family love and use them as a resource for national love. Through cultivating sympathy, eliminating hostility, and managing love, Yi Kwang-soo created national love in the 1910s. After World War I in 1919, he gained hope for independence through Wilson's national self-determinationism, and wrote in the ‘2.8 Declaration of Independence’

that he would declare eternal bloody battle against Japan and then escaped to Shanghai. However, considering the love for the nation he developed, it was inevitable for him to return to the Korean Peninsula, where the majority of the Korean people live.

Key words: Yi Kwang-su, Sympathy, Love for the people, National love, 'Yoon Kwang-Ho', 'To a Young Friend', *MooJung*

투 고 일: 2024년 2월 26일

심 사 일: 2024년 3월 12일

게재확정일: 2024년 3월 12일

수정마감일: 2024년 3월 25일